

글 박선경

임유이그림

연재소설 위선의 시대

〈38〉 포섭 대상

“나, 얼마 전에 검정고시 봐서 중학교 졸업했다 아입니까. 제 동생이 부산에서 수학 천재라예. 그래서 지도 수학은 조금 하지예.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쳐 줘도 될까예? 마,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동이의 작은 눈이 커졌다.

구세주 만난 표정이었다. 방 안에서 폴 작품작 뛰었다.

오메 오메 오메, 참말이랑가? 나가 국민학교 댕길 때도 산수를 모대가지고 대 글뻑 나쁘다고 울 엄니헌티 매일 등짝 맞았는디 오메, 인자, 살긋네. 희숙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렇게 잘 풀릴 일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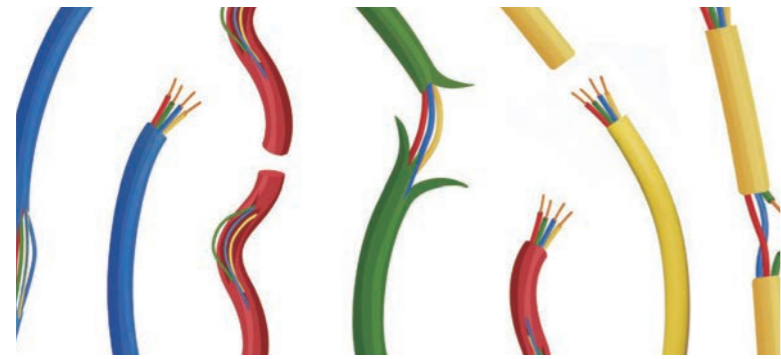
희숙과 동이는 부서가 달랐다. 희숙은 조립했고 동이는 부품 분류와 포장까지 했다. 동이와 부서가 달라 공장에서 대화할 기회는 없었지만 일을 마친 후 속소로 돌아오면 동이는 하루 일과를 보

지난해 신규 노조가 200개 넘게 생겼다 해도 신규 노조들은 정부나 사업주가 주는 불이익과 또 싸워야 했다. 불안정한 노조는 와해되거나, 있어도 제 기능을 못 했다.

두려움이나 불안은 전염성이 강했다.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피켓을 들고 공장 앞에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지나다 보면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측은함과 회사에 대한 반발심이 생기기도하는 권리를 포기하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해고당한 당장 입에 풀칠할 대안이 없다는 게 약자들의 공포였다. 노조가 생겨 사업주들을 압박해 노동자 권익이 향상되면 좋겠지만 자칫 잘못해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그보다 무모한 시도는 없을 터였다.

동이도 마찬가지였다. 아침부터 야근까지 일해 번 돈은 고스란히 고향 부모 댁으로 보내졌다. 동이 한 달 월급은 고



고하듯 떠들었다.

동이는 회사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시비에 대해서, 희숙은 노조 설립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떠봤다.

처음 노조 얘기가 나왔을 때 동이는 노조가 설립되면 근로자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지 몰랐다.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었다. 동이는 옆 사업장에서 위장 취업자가 선동해 위장 취업자에게 휘둘린 근로자까지 해고당한 얘기를 전하며 괜히 노조니 어쩌니 만들다 해고라도 당하면 어쩌냐며 겁을 먹었다.

공장 내 근로자들 분위기는 노조 설립에 부정적이었다. ‘일월’에서 벌어진 일은 아니었지만 주변 공장에서 노동자 권리니 복지니 주장하다 쫓겨난 노동자들의 절박한 상황은 이미 알고 있었다.

항집 여섯 식구의 과거·현재·미래였다. 공장에서 일하는 동이의 권익보다 중요한 게 고향 식구들의 하루 먹거리였다.

인간답게 사는 건 배고픔을 해결한 뒤의 일이었다. 아무리 희숙이 일을 빨리 배운다 해도 수십 년 여공들의 구력을 쫓아가기엔 턱없이 느린 손놀림이었다.

희숙은 구리 포일을 감싼 피복을 파란색과 빨간색-검정색으로 분리한 후 다시 얇고 작은 하얀 플라스틱 통 안으로 집어넣는 작업을 했는데 세 개의 전선은 흰색 통 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희숙의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갔다.

숙련된 여공들이 1분에 스무 개를 하는 동안 희숙은 겨우 두 개 정도였다. 그러나 아무도 초보 근로자의 미숙함을 탓하거나 눈치 주는 사람은 없었다. 단 순노동인 만큼 시간이 해결할 문제였다.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CJ ENM 30주년 기념 비저너리 선정작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관객과의 대화에 박찬욱(가운데) 감독과 (왼쪽부터)이병헌·이영애·김태우·송강호 배우가 참석했다. 'JSA' 스틸컷과 포스터(오른쪽). 연합뉴스 스틸컷

박찬욱 “JSA는 나를 살려 준 작품”

“이 영화 속 내용이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도 똑같은 감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건 어찌 보면 슬픈 일이에요. 개봉 50주년 때는 그저 옛날 얘기처럼 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찬욱 감독은 4일 서울 CGV 용산아이파크몰 박찬욱관에서 열린 '공동경비구역 JSA'(USA) 관객과의 대화(GV)에서 이 같은 바람을 전했다.

'JSA'가 CJ ENM 비저너리에 선정된 것을 기념해 마련된 이 행사에는 박 감독을 비롯해 주연 배우 송강호·이병헌·이영애·김태우가 참석했다. 비저너리는 문화산업 진출 30주년을 맞은 CJ ENM이 자사 콘텐츠 가운데 대중문화계의 패러다임을 바꾼 작품을 꼽은 것으로 영화 부문에선 'JSA'와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2013), '기생충'(2019) 등이 선정됐다.

2000년 개봉해 580만 관객을 동원한 'JSA'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사이에 둔 남북 초소 군인들의 우정과 이들에게 벌어진 비극을 그린 작품이다. 분단의 아픔과 그 속에서 피어난 휴머니즘을 담은 서

개봉 25돌 맞아 '관객과 대화'

580만여 명 관람 공전의 히트
한국영화 대표작품으로 우뚝

송강호·이병헌 흥행배우 도약

사,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탄탄한 구조 등으로 지금까지도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명작 중 하나로 꼽힌다. 제5회 베를린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하며 유럽에서도 주목받았다.

데뷔작 '달은...해가 꾸는 꿈'(1992)에 이어 두 번째 연출작인 '3인조'(1997)까지 연달아 흥행의 쓴맛을 봤던 박 감독에게 'JSA'는 커리어의 전환점이 된 작품이다. 'JSA'로 흥행에 성공한 그는 이후 '복수는 나의 것'(2002), '올드보이'(2003) 등 자기만의 색깔이 뚜렷한 작품을 내놓을 수 있었다.

박 감독은 “세 번째 기회마저 놓치면 'JSA'가 유작이 될 거라는 절박한 마음과

비장한 각오로 만들었다”며 “이 영화는 저를 살려 준 작품”이라고 떠올렸다.

주연 배우들 역시 이 영화로 전성기의 포문을 열었다. 특히 송강호와 이병헌은 이후 25년간 굵직한 작품의 주연을 잇달아 맡은 것은 물론이고 세계에서도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배우로 성장했다.

송강호는 “3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배우로서 술한 굴곡과 일이 있었지만, 'JSA'는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첫 번째 화양연화(꽃처럼 아름다운 시절)”라며 “나도 저렇게 멋질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해 준 작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나리오가 너무 밀도 있게 짜여 있고 완벽을 추구하는 것 같았다”며 “한국 영화가 이걸 과연 구현할 수 있을까, 시나리오에만 이렇게 써놓고 (결국) 이상한 영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믿음이 가지 않았다”고 웃었다.

남한군 병장 이수혁을 연기한 이병헌은 'JSA'를 통해 처음으로 “흥행의 맛”을 봤다고 했다. 드라마에서와 달리 스크린에 선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인 이병헌은 1990

년대 대부분의 영화가 흥행에 실패했지만, 'JSA'로 흥행 배우 반열에 올랐다.

이병헌은 “25년 전 시사회에서 영화를 처음 보고 감동했던 게 지금도 생생하다”며 “그때는 관객과 함께 울고 웃는 게 너무 좋아서 극장에서서만 40번 넘게 영화를 봤다”고 회상했다.

한국계 스위스인 소령 소피 역을 소화한 이영애는 'JSA'에서 박 감독과 연을 맺은 것을 계기로 '친절한 금자씨'(2005)에 선 주인공 금자를 연기했다.

이영애는 “20대 끝 무렵에 'JSA'를 만났는데 30대에 좋은 작품에 많이 참여하고 '친절한 금자씨'도 할 수 있었다. 기적 같은 작품”이라면서도 “지금 소피 역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찍어 편집하고 싶은 마음”이라며 미소 지었다.

이수혁의 후임 일병 남성식 역의 김태우는 “저는 다시 돌아가도 그때의 느낌을 못 살릴 것 같다”며 “개봉 전에 기술 시사회 때 영화를 보고 이런 좋은 영화에 출연하게 돼서 감사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미술시장 거품 빠졌다”... 경매 낙찰액 전년比 25.2% 감소

작년 상반기 낙찰액 13.5%↓

국내 미술 경매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지난해 총 낙찰액이 전년도에 비해 25%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가 5일 내놓은 '2024년 연간 미술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개 국내 주요 경매사의 총 낙찰액은 1135억2520만 원으로 전년도 1518억1580만 원에 비해 25.2% 감소

했다. 특히 온라인에서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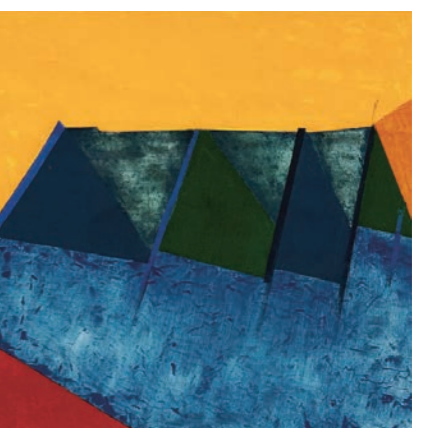
총 경매 횟수도 266회로 11회 줄었으며 출품작 수도 2만8553점에서 2만4023점으로 15.9% 줄었다.

이런 사태는 이미 예견된 바 있었다.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옥션과 케이옥션 등 양대 경매사의 상반기 낙찰총액이 559억 원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이는 전년도 상반기 580억 원 대비 3.6% 감소한 수치다.

이런 가운데 10억 원 이상에 거래된 작품은 전체 판매 총액의 약 22%를 차지해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가격대별로는 1억에서 5억 원대 작품 거래가 가장 활발해 전체 거래의 약 60%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정치적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한국의 미술시장 또한 어려운 한 해를 보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울옥션에서 경매 중인 유명작 'Work'. 서울옥션

임유이 기자 lye@skyedaily.com

새 희망을 심겠습니다

스카이데일리 임직원 일동

